

일반
논문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의 분석을 통해 본 진보적 여성연대

한국여성대회(1985~2016년)를 중심으로

신상숙 _서울대학교

논문요약

지구촌의 대표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은 '3·8 세계여성의 날'과 이를 기념하는 의례는 각국의 여성들이 해당 사회의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열망을 표출하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확장하는 기능을 해왔다. 3·8 세계여성의 날이 국경을 초월한 여성연대의 상징이라면, 이를 기념하는 행위는 지역화된 여성운동의 동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과거를 기념하는 의례가 저항의 의미를 함축하고 현재의 운동에 대하여 내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때,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례에 대해서도 '운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3·8 국제부인데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이 기념의 전통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명맥이 끊겼던 기념의 실천을 되살린 것은 1980년대에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3-H00007).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 토론회(2008. 4.14)의 준비 과정에서 획득된 문체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열람에 협조해주신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분들과 유익한 논평으로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군사독재 시기에 등장하여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었다. 이 단체들이 1985년에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제1회 한국여성대회는 그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여성대회’는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촉진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출범(1987)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합운동의 존재는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횡단하는 3·8 기념의례의 지속성과 여성연대의 확장에 일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여성대회’를 비롯하여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운동의 집합적 실천의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3·8 여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들을 짚어보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부단히 이어진 ‘한국여성대회’는 여성운동의 입장과 요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집회에서 문화적 축제로 그 의례의 형식과 내용이 변모하면서 발전해왔다. 이 글에서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한국여성대회’를 중심으로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지역의 차원에서 이뤄진 3·8 기념의례의 확산 과정을 아울러 살펴본다.

■ 주요어: 3·8 세계여성의 날, 한국여성대회, 여성운동, 여성연대, 연대 형성, 의례분석

1. 들어가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집합행위가 드러나는 양상이라든지 여성운동의 이념과 조직은 실로 다양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해왔다. 역사적으로 근대의 문턱에서 시작하여 지구적인 현상

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 실천적 행동주의로서의 ‘여성운동’ 혹은 우리가 ‘여성주의’라 부르는 페미니즘 사상의 흐름을 한 마디로 정의하거나 요약하기는 어려우며, 그 역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관점도 시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Offen 1988; Ferree and Hess 2002).¹⁾

그간의 이론적 발전을 통해 현 시점에서 페미니즘이 도달한 ‘차이’에 관한 철학적 사유에 비추어 본다면, 존재하는 것은 단일하고 보편적인 여성으로서의 경험이라기보다 여성들 간의 차이와 억압의 다양성을 내포하는 모종의 경험들일 것이다. 여성의 억압적인 경험을 공통의 기반으로 삼아 자매로서의 연대를 상정하였던 제2세대 페미니즘의 한계를 비판하는 오늘의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재현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타자화되기 쉬운 차이의 경험들에 주목하면서 젠더와 민족,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가 교차하는 삶의 위치성과 횡단의 정치를 고민한다.

하지만 여성의 동질성을 전제하고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본질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더라도, “차이의 존재론”에 입각한 본질주의 비판의 목적이 “차이의 생산에 대한 무반성적 긍정”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이상화 2004, 92). 차이들을 가로지르는 연대 또는 횡단의 정치란 오히려 다양한 억압이 교차하는 각각의 현장들이 위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정당하게 해결하고 대화와 협력, 연대를 이루려는 정치적 실천의 기

1)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 번역·소개되기 시작한 1970~1980년대에 흔히 ‘여성해방론’으로 번역되었던 페미니즘이 오늘날 ‘여성주의’란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운동의 정체성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획이기도 하며, 횡단하는 여성들의 여정이 그 연결성을 축제의 기쁨으로 만들 때 한층 현실적인 힘으로 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모한티 2005; 유발테이비스 2012; 김엘리 2013).

이는 여성운동의 주체 위치에 놓이는 ‘여성’이란 화두가 그러하듯이, 여성들 사이의 ‘연대’ 역시 선형적으로 주어진 범주라기보다 오히려 경험적으로 설명되고 성찰적으로 반추되어야 할 역사적 구성물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지구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가속화되는 오늘날에는 여성운동의 활동범위나 인식론적 공간이 반드시 국가 단위로 환원되거나 일국 안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황진태·정현주 2015; 안숙영 2012). 여성운동의 현장은 지구적 차원의 초국적 페미니즘이 지역화된 역사성과 만나 문화적 경계가 재협상되는 매개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세계여성운동의 핵심적인 상징이자 대표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된 ‘3·8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과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기념해온 여성운동의 의례(ritual)에 주목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로 소급되지만, 이 기념의 전통이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의 여파 속에서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억압 속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80년대에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지난 30여 년간 부단히 이어진 이 대회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입장과 요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집회의 형식에서 문화적 축제로 그 의례의 형식과 내용이 변모하면서 발전해왔다.

이 연구는 '3·8 세계여성의 날'이라는 초국적 상징의 영향사를 한국 여성운동의 경험적 맥락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일찍이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는 진보적 여성들의 연대를 촉진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출범(1987)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합단체의 존재는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횡단하는 3·8 기념의례의 지속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한국여성대회'를 중심으로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지역의 차원에서 이뤄진 3·8 기념의례의 확산 과정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구지역적(global) 특성이 반영된 기념의례의 현장 체험과 그것의 축적된 역사가 여성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이라든가 상징적·조직적 연대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로는 우선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의 1차 문헌기록이 있다. 지난 2008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그간에 개최된 한국여성대회 관련 기록을 수집·발굴하는 역사기록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각 대회의 슬로건, 대회사, 선언문 등 핵심 의제 외에 대회 참여자들의 후기가 작성되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08). 이 과정에서 수행된 지역여성단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직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조사는 지역의 사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2008년 이후에 개최된 최근 대회들에 관해서는 여성단체의 행사 관련 보도자료, 웹사이트, 그리고 총회자료를 비롯한 내부 문건 등을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연구자가 직접 기념의례의 현장에 방문하여 참

여관찰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흐름과 진행 과정을 파악하였다.

이하의 논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3·8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사회운동 연구의 의례분석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가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어떻게 변모해왔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별 3·8 기념의례의 확산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진보적 여성연대의 분화와 발전의 양상을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 3·8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 관련 연구

3·8 세계여성의 날과 이를 기념하는 여성운동의 실천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가치가 있는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노동절(Mayday)’이나 ‘5·18 운동’이 그러하듯이 사회적인 저항과 연관되어 있고 주기적인 기념의 실천 자체가 운동의 함의를 갖는 기념일이며(임영일 2006; 정근식 1998), 일상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난 참여자들이 탈일상의 시공간에 모여 집합적 열광을 경험하고 연대감을 확인하는 ‘의례(ritual)’의 일종이기도 하다(김종엽 1998; Ozouf, 1988; Grever 1997; Chatterjee 2002).

3·8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는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이를 지

지히는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했던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로부터 한 세기에 걸쳐 이뤄진 기념일의 정립 과정이라든가 기념 활동 전체를 한정된 지면에서 포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 연구들은 대부분 자국의 기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기념일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세계여성의 날의 방대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단서들을 제공한다(Côté 1984; Stevens 1985; 川口和子 외 1980; 伊藤セツ 2003; Scholze 2001).²⁾

흔히 기념일의 배경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다른 일상의 날들과 구별되도록 만드는 사건이 자리잡기 마련이다. 그런데 세계여성의 날은 그 역사적 배경에 놓인 기원의 사건이나, 최초의 기념 시기와 관련하여 정보의 불일치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이며,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유래와 관하여 다양한 설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기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Kandel et Picq 1982; Côté 1984; Kaplan 1985; Grever 1997; 신상숙 2010).

가령 전거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세계여성의 날과 직접 연관된 최초의 사건은 1909년 2월에 여성선거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미국 사회당이 기획한 집회이지만,³⁾ 이러한 사실은 공공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진

2) 세계여성의 날의 정립 과정과 우리나라의 해방 이전 기념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상숙(2010, 166-174)을 참고하기 바람.

3) 1909년에 미국 사회당의 여성들은 2월의 마지막 일요일(1909.2.28)을 여성선거권 획득을 위한 ‘여성의 날’로 선포하고 집회를 열었다. 일회성의 행사에 그칠 수도 있었던 집회는 1909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고조되는

채 오히려 다른 종류의 서사가 이를 대체해왔다(Kaplan 1985).⁴⁾ 아직까지도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에 관해서는 다수의 설들이 공존하며, 이 가운데는 일종의 신화 또는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伊藤セツ 2003). 그런데 이처럼 기원의 이야기가 불일치를 보이는 까닭은 세계여성의 날이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유래한다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확산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건과 실천들이 결합하면서 날짜가 고정된 기념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신상숙 2010).

미국 사회당의 1909년 여성의 날 집회 이후 여성노동자 투쟁이 고조되자 1910년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인터내셔널의 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는 클라라 체트킨(Clara Zetkin) 등의 발의로 ‘국제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그 이듬해인 1911년부터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여성의 날을 함께 기념하기 시작하여 그 범위가 차츰 늘어났다(Kaplan 1985; Buhle 1981; 伊藤セツ 2003). 한편 1917년에 3월 8일(구력 2월 23일)에 러시아의 페트로그라드(상트페테스부르크)에서 여성의 날을 맞이한 여성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와 시위가 결과적으로 2월 혁명의 서곡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1921년 6월에 모스크바에서

분위기와 맞물려 두 번째 집회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은 클라라 체트킨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게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 4) 198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공유되었던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설은 1857년에 이어 1908년 3월 8일에 미국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이 벌인 시위와 행진에서 기원을 찾는 ‘1857/1908년설’이었으나, 역사학자 카플란은 이러한 사건 발생의 전거를 발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Kaplan 1985).

열린 제2회 코민테른 여성회의는 각국이 날짜를 통일하여 기념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922년부터 3월 8일이란 날짜에 맞추어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비로소 자리잡게 되었다(신상숙 2010, 166-174).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모두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운동이 활성화되는 1920년대부터 ‘국제부인데이’, ‘국제무산부인일’ 또는 ‘국제부녀절’과 같은 이름으로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1924년에 염군사(焰群社)라는 잡지사가 시도한 강연회가 일본 경찰의 집회금지로 무산된 후, 1925년에 대구여자청년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이 각각 기념 강연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기념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린 기념의 실천은 1927년 근우회의 창립으로 좌·우익 계열의 여성들이 대중적인 여성운동을 모색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공유될 수 있었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도 좌·우익 계열의 여성들이 이날을 함께 기념하고자 했던 시도가 확인된다(이승희 1991). 그러나 분할점령이 분단으로 이어지고 한국전쟁의 상흔이 반공이데올로기로 굳어지면서 여성의 날 기념이 중단된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⁵⁾

5) 1920년대부터 미군정기까지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이 이 기념일의 유래를 설명하는 신문기사들에 반영된 기원설은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성노동자 투쟁과 1921년 여성회의의 결의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결의를 많은 나라들이 실행에 옮긴 1922년을 기점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기원을 둘러싼 서사의 변화와 불일치는 냉전체제하에서 기념의 전통이 단절·복원을 거친 나라들에서 한층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신상숙 2010).

그러나 서구사회를 뒤흔든 여성해방운동의 물결과 초국적 페미니즘의 영향 속에서 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7년 12월에 UN 총회는 모든 국가가 “여성의 권리와 국제적 평화를 위한 UN의 날”을 정하여 공포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세계여성의 날의 기념이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3·8 세계여성의 날 역사와 관련하여,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단절되었던 기념의 전통이 1980년대에 새롭게 부상한 진보적 여성운동에 의하여 복원되고, 1985년부터 ‘한국여성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기념의례가 30여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 여성운동의 경험 맥락 속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사회운동론의 문화적 접근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한국여성대회’는 해당 시기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와 운동문화의 핵심적 요소들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여성운동사의 생생한 시연의 장으로서, 의례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만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발전시켜왔다(신상숙 2008). 따라서 사회운동을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와 이론들을 간략하게나마 일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찍이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원시종교 연구에서

발원하는 집합적 열광과 의례에 관한 이론은 사회운동을 일종의 의례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김종엽 1998; 박선웅 2007).⁶⁾ 뒤르켐의 원시종교에 대한 연구는 사회운동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연대’의 동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집합적 열광, 집합의식 같은 개념을 제공하여 사회운동의 핵심적 계기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그가 의례의 기본 속성으로 주목한 ‘공현전(co-presence)’ 현상은 함께 모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강도와 밀도가 높아지고 서로 공명하는 가운데 감정이 증폭되고 고양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박선웅 2007, 31-32).⁷⁾

박선웅(2007)의 연구는 뒤르켐의 통찰과 의례화의 전략 및 실천을 강조한 후기 뒤르켐주의 이론을 접목하여 1987년 6월 항쟁에서 집합적으로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과 사회적 연대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탈일상성, 공현전, 집합열광, 자기초월, 연대 등은 의례가 갖는 특성이자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근대적인 세속의례의 하나인 사회

6) 에밀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연구하면서 토템 상징이 지니고 있는 ‘성스러움’의 특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종교 관념의 발생을 “집합적 열광(effervescence collective)”에서 찾았다. 그의 마지막 저서인 『종교생활의 원초적 제형태』(1912)의 제4장에서 논의된 원시종교 의례에 관한 뒤르켐의 통찰은 의례분석의 다양한 연구들로 이어졌다(박선웅 2007). 사회운동의 이론적 자원으로서는 뒤르켐의 집합행동론이 갖는 의의에 관해서는 김종엽(1998)의 제4장을 참조.

7) “(의례의) 첫 번째 효과는 개인들을 모으는 것이며, 그들 사이의 접촉을 배가시키고, 그들의 접촉을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다”(Durkheim 1995, 32; 박선웅 2007, 33에서 재인용).

운동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미 제도로 정착되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의례와 달리 사회운동에서는 의례화의 실천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공동의 일체감과 같은 성스러움의 집합적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례화(ritualizing)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의도된 혹은 의도되지 않은 연행(performance)을 함께 고찰하였다(박선웅 2007).⁸⁾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지만, 운동의 구조와 조직의 자원 동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들에 비하여 운동 참여자들의 집합적 정체성 이라든가 운동 문화에 관심을 갖는 문화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대두한 연구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접근의 활성화에 일조한 것은 신사회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에 대한 관찰에서 얻어진 이론적 통찰이었다. 여성운동의 연구를 통해 사회운동의 새로운 이론화를 추구하는 테일러와 위티어의 연구는 이 점에서 주목된다(Taylor and Whittier 1995).

여성운동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운동의 문화적 차원을 네 가지로 구분한 테일러와 위티어는 프레임(frame),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담론(discourse)과 더불어 의례(ritual)를 분석적 차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하

8) 한편 사이버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담론들의 경합을 포스트모던 집합의례의 시각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한 최종렬(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의례의 특성인 성/속의 구분이나 상징적 분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연대가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한다.

였다. 이들은 사회운동을 의례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사회 운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정정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말한다. 남성중심적인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의례의 기능과 효과는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밤길 되찾기(taking back the night)’ 행진과 같은 의례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역량강화(empowerment)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즉, 피해 당사자는 능동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역동적인 행위자인 것이다. 테일러와 위티어를 비롯한 여성운동 연구자들은 피해자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와 공감의 단지 합리성의 대립물로 여겨지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Taylor and Whittier 1995, 164).⁹⁾

이 연구의 주제인 3·8 세계여성의 날과 이를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행위의 시공간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핵심 요소들을 시연함으로써 연대와 결속을 도모하는 의례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한국여성대회의 경우, 그 의례의 형식과 내용은 테일러와 위티어가 도출한 문화분석의 네 가지 차원(프레임, 집합적 정체성, 담론, 의례) 모두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9) 가령 에릭 홉스봄 등(Hobsbawm and Ranger 1983)과 같은 연구자들은 의례가 19세기 이전의 초보적인 사회운동에 국한되며 근대의 운동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실천들이 위주가 된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견해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3. 진보적 여성운동과 ‘한국여성대회’의 전개 과정

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의 탄생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폭력적 진압과 더불어 시작된 1980년대는 반독재투쟁과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변혁적 이념에 기초한 여성운동이 대중적, 조직적 기초를 확보해간 시대”로 평가된다(강남식·윤정숙·남인순 1999). 정치적 유화국면이 시작되는 1983년에 이르러 ‘여성평우회’와 ‘여성의전화’가 창립되었고, 1984년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와 ‘또 하나의 문화’가, 그리고 1986년에는 ‘기독교여민회’가 창립되는 등 조직 결성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가부장제 문화 타파를 목적으로 삼는 동인모임으로 출발한 ‘또 하나의 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스스로를 ‘진보’로 명명함으로써 기존의 주류 여성단체들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강남식 2004).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움’은 이전 시기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1970년대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교양을 위한 취미활동이나 사회봉사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1975년 UN의 ‘세계여성의 해’ 이후 가족법 개정을 비롯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1970년대에 등장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나 도시 빈민, 농민 여성

의 문제는 기존 여성단체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¹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운동의 '주류'로 여겨지는 단체들의 상당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단체가 196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전국여성대회'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¹¹⁾ 전국여성대회는 제1회 대회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주로 결의문과 정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매년 수천 명의 회원 외에 정부 요인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을 만큼 규모가 큰 대회였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3). 하지만 여성의 권익 확보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독재정권의 사회통제를 묵인하고 여성 대중의 삶과 유리된 채 관변 단체로 인식되는 기성 여성단체들의 모습은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웠다(서명선 1989).¹²⁾

10) 1970년대에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극도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동일방직 노조를 비롯하여 민주노조가 건설된 사업장들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졌고, 이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1979년의 'YH사건'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11) "1,500만 여성을 대표한 전국여성대회는 우리의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여성의 지위향상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힘쓴다. ... ② 여성에 관계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혁에 힘쓴다. ... ③ 여성의 실력배양에 노력한다."(제1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

12) 김경희(2011)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두 진영이 대립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대하거나 공조해왔는데,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제 폐지, 모성보호제도 개선, 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 등에서 두 진영의 연대와 공조는 일

여성평우회를 비롯하여 1980년대에 여성운동을 시작한 단체들은 역사가 짧고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여성해방의 이념을 받아들인 새로운 운동 세대였기에 젊은 활동가들의 열정과 행동주의는 향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¹³⁾ 또한 이 신생단체들의 주변에는 교회여성연합회라든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산하 여성위원회처럼 이미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단체들이 있었다(이현숙 1992). 운동 세대와 활동 기반이 달랐지만,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에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1984년에 발생한 경찰의 여대생 추행사건에 공동으로 대처한 경험은 이후 시안별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1985년에 개최된 제1회 한국여성대회의 구상은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3·8 세계여성의 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접한 두 집단의 논의로부터 비롯되었다. 우선 이우정, 박영숙, 안상님을 비롯한 교회여성운동계의 몇몇 인사들은 1984년 9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CCA) 주최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여성의 날에 관한 논의를 접하고 아시아권의 여성들도 함께 기념하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교류하

정한 성과를 보여줬다(김경희 2011, 187).

- 13) 1983년에 창립한 여성평우회는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를 개혁하고 남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며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기취지문」을 통하여 근로 여성, 농촌여성, 도시빈민여성, 도시주부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공통의 경험에 주목하면서 “우리 여성은 서로의 처지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한다고 밝혔다(여성평우회 1984).

였다. 또한 여성평우회의 이미경을 비롯한 젊은 활동가들은 여성사에 관한 학습 과정을 통해 근우회의 활동이나 3·8 기념행사에 관한 역사를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각각 3월 8일의 상징적 의미를 인지하였으나 ‘대회’를 기획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실행에 옮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4년 8월에 발생한 버스 안내양의 자살사건이었다. 부당한 몸 수색과 사직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여성노동자가 자살하였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유아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여성평우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여성문제와 관련된 사건·사례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듬해 3월 8일에 맞추어 첫 여성대회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신상숙 2010).¹⁴⁾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1985년에 3월 8일 저녁에 서울 YWCA 강당에서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우정 여성평우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제1회 대회에서는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85 여성운동 선언」이 선포되었다. 선언이 담고 있는 여성운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주제강연’ (이효재 교수)에 이어지는 ‘사례보고’에서는 목동 주민의 호소와 세입자의 철거 문제, 유니전의 노조 탄압, 제주도의 매춘 관광 등 5개의 사례가

14) 한국여성대회의 탄생 배경과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상숙(2010, 176-180)을 참조.

발표되었다. 그리고 도깨비 마당의 형식을 빌린 사례극 “들꽃은 쓰러지지 않는다”가 시연되었다.¹⁵⁾

2) 기념의례의 초기 연대 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출범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3·8 세계여성의 날’이라는 기념일은 다양한 기원 서사들이 조합된 초국적 상징이며, 이를 수용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서 기원 서사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의 대회사에 강조된 것은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한 서사였다. 대회사는 “민중 중의 민중인 여성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외쳤던” 기념비적인 사건에 한국 여성운동의 새로운 계기를 접속하면서 기념적 실천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 이 모임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를 선언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에서 1908년 수천 명의 여공들이 작업조건 개선, 임금인상, 미성년들의 노동금지,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 등 민중 중의

15) 제1회 한국여성대회의 포스터를 비롯한 행사자료는 여성평우회의 기관지 『여성평우』 제4호에 ‘부록’으로 게재되었다(여성평우회 1985). 여성평우회는 기관지 『여성평우』를 발간하는 것 외에 여성학 교실, 빈민 공부방 사업, ‘여성문화 큰잔치’와 같은 문화운동에 역점을 두었다. 안타깝게도 여성평우회는 사회변혁 논쟁의 여파로 1986년에 조직이 해소되지만, 주요 활동가들은 새롭게 단체를 조직하거나 다른 단체들에 참여하여 활동을 이어나간다.

민중인 여성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외쳤던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세계 여성의 날 유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새로운 여성운동의 계기를 선언하는 것이라 보고 싶습니다. …… 중산층의 기성세대라 볼 수 있는 교회단체들, 젊음과 창의성을 가진 젊은 여성단체들, 여성노동자 단체, 여성농민단체, 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들, 모두 하나로 뭉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제1회 한국여성대회 대회사).

1985년 당시 한국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기념일의 상징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1985년 4월에 발생한 사무직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은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를 결성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¹⁶⁾ 또한 동년 6월에는 더 많은 단체와 학생회가 ‘성도섬유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복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폭행에 항의하는 ‘툼보이 불매운동’에 돌입하였다. 이밖에도 구로지역 동맹파업 등 사무직·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이슈가 제기되고 투쟁이 분출하자 여성단체들은 이들의 생존권 투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제2회 한국여성대회(1986.3.8)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적

16) 1985년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무직 근로자 이경숙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평균 연령인 26세부터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주부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당 임금 4,000원으로 산정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표 1〉 시인별 연대, 3.8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의 창립 과정(1984-1987)

	1984	1985		1986		1987
		제1차 한국 여성대회	25세여성조 기정년제철 폐를위하여 성연합회	성도섬유부 당해고여성 노동자복지 추진위원회	제2차 한국 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 위원회	
참여단체	여대생 추행사건 대책협의회					
연대활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	○	○	○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	○	○	○	○
한국여성학자협의회	○	○	○	○	○	○
여성평우회	○	○	○	○	○	○
여성의전화	○	○	○	○	○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신교위원회	○	○	○	○	○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	○	○	○	○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여성부(*)	○	○	○	○	○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여성부	○	○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	○				○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도회한국연합회 (○)						
또하나의문화		○	○	○	○	○
주부아카데미협의회		○			○	○
가톨릭여성농민회		○			○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			○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				○	○	○	○	○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					○				○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여성부					○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여성부									○
서울노동운동연합 여성부									○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분과									○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
한국기독교농민회 여성부									○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맹 여성부									○
기독교민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성남민주사회발전연구회 여성분과									○
여성사회연구회									○
가정법률상담소									(○)
민족미술협의회 여성분과									○
전국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위원회									○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여성분과									○
대학(여학생회,여학생운동 관련 연합대책위)	14개대				○				여공투 (여대협) 외
연대체 참여단체 수	11	14	6	29 (18개 대)	20	24	21		

주: 각 시·도별 연대체의 성명서 및 발간 문건 자료에서 작성. (○) 표시는 최초 발족 당시 참여하지 않았으나 추가로 결합한 단체.
자료: 신상숙(2007), 123쪽.

극적으로 지원하는 ‘생존권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생존권대책위원회는 다시 부친서 성고문사건의 대책위로 확대·재편되었다. 그 연장선에 진보적 여성운동의 상설적인 연대조직으로서 1987년 2월에 창립한 단체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창립 당시 21개 회원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처음부터 조직의 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된 것은 아니었다. 독자적인 조직의 형태를 갖춘 단체는 절반에 그칠 뿐, 나머지는 여타 사회운동단체의 여성부 또는 여성위원회와 같은 분과 조직이었다. 더욱이 지방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에 창립한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여성연합에 가입하고, 지역 또는 전문 분야에 특화된 여성운동단체들이 속속 결합하게 되면서, 여성연합의 내부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종교여성단체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독자적인 형태의 여성단체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몇몇 회원단체들은 그 자체가 전국 범위의 연합조직으로 규모가 커졌다. 여성연합은 지역여성운동의 성장을 기반으로 지부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2016년 현재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의 연합체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연합의 이런 조직기반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국여성대회(1985~2016년)의 의례분석

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 형식의 변화

분단과 전쟁으로 단절되었던 3·8 세계여성의 날은 1980년대에 모습을 드러낸 진보적 여성운동에 힘입어 부활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매년 열리는 한국여성대회는 선언과 축제를 통하여 연대를 확인하고 여성운동의 존재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왔다. 한국여성대회가 공연성을 갖는 대중적인 집회로서 30여 년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 무게는 이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단지 기념을 위한 기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행 방식을 둘러싼 숭한 고민을 통해 여성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를 써왔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¹⁷⁾

한국 여성운동의 역동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1990년대는 여성운동의 질적 변화와 양적 성장을 반영하여 한국여성대회의 형식과 내용이 한층 풍부하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한국여성대회는 여성운동의 방향과 특히 그해에 선정된 ‘중점과제’를 대중

17)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를 준비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지부 및 회원단체의 준비 과정은 통상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총회 직후인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준비위원회와 기획팀이 조직되고 행사계획과 세부 내용이 구성되며, 대회의 슬로건, 올해의 여성운동상, 걸림돌·디딤돌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회원단체들의 수렴을 거쳐 그 내용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2〉 한국여성대회의 행사 구성과 프로그램의 변화

1985	1995	2005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식 프로그램 • 대회사 • '85 여성선언 • 주제 강연 • 사례보고(5건) • 시례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식 프로그램 • 길놀이 • 회원단체 기수 입장 • 개회선언 • 대회사 • 격려사 • 내빈소개 • 축하노래 • 나도 한마디 • 연극 • 노래 • 우리가 사랑하는 지역실림의 참일꾼 • 여성노래발표 • 선언문 채택 • 다함께 노래를 • 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미팅 • 참여 프로그램 • 내가 만드는 여성화랑길! / 화랑기면 만 들기 / 페이스 페인팅 / 에드벨론 희망적기 • 전시 프로그램 • 가상의 딸 시진전시 및 "엄마와 딸" 시진편 기 / 2005, 여성노동자 시진전 / 호주제, 성매매 관련 내용의 전시 /안아주세요 캠페인 전시 / 만나서 반갑습니다 ◆ 식전축하행사 ◆ 기념식 프로그램 • 개막영상 • 참가단체소개 • 대회사 • 내빈소개 • 축하영상 • 2005년 여성희망 ◆ (미무리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플난장(프로그램 생략) ◆ 퍼플유킹(3코스) ◆ 기념식 • 개막퍼포먼스 • 대회사 • 내빈소개 • 축사 • 연대의 발언 • 성평등 결의문 발표 • 성평등 다짐문 발표와 시상 •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및 축하 세레모니 ◆ (미무리 행진) ◆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제주, 포항 등지에서 지역별 여성대 회 및 기념행사 등 ◆ 기타 전시회 등 문화행사(캘리그래피 전 시회, 온라인캠페인) 및 단체 행사

적으로 공유하는 선언의 장으로, 또 여성운동의 존재와 조직화된 힘을 보이고 연대를 확인하는 축제의 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공식적인 기념식의 전후로 전체적인 연행(performance) 흐름을 형성하는 연회적인 요소가 많이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 제31회 대회를 예로 보면, 퍼플난장의 부스들이 설치되고 참여자들이 보라색(퍼플)의 드레스코드에 맞춰 복장이나 장신구를 착용할 것이 권장된다.

이렇게 드레스코드를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행사장으로 걸어서 진입하는 것이 일상으로부터 분리(seperation)되어 문턱을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기념식의 전체 과정과 축하 세레머니는 전이(limen)의 단계, 그리고 마무리 행진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재통합(reaggregation)에 준한다. 이것은 의례가 “일상과 다른 특별한 감정, 에너지 상황을 경험하도록 전략적으로 의도된 상징적 실천들”이라는 후기 뒤르켄주의자들의 주장(박선웅 2007, 35)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국적 페미니즘을 통해서 수용된 ‘3·8 세계여성의 날’이라는 상징의 특성은 이러한 기념의례가 특정 여성운동 집단의 내부 결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집단 간 연대와 분화·확장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멜루치는 객관적인 구조나 주관적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과정으로서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as a process)”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집합적 정체성은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심리적 개념이라기보다 구성주의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그것은 공동체나 잠재된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고 활성화되는 무

엇이며, 이러한 집합적 정체성은 개인들의 주관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발현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Melucci 1995, 44-45).¹⁸⁾ 이하에서는 한국여성대회를 구성하는 행사의 주요 항목들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3·8 운동의 레퍼토리와 그 의례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여성운동의 방향과 의제: 선언, 요구, 슬로건

우선 한국여성대회의 선언문(또는 결의문) 및 ‘우리의 요구’(주장), 대회 슬로건, 포스터 등은 해당 시기 여성운동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며 여성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대회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공유함으로써만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달리, 슬로건이나 선언문은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기능을 한다.

먼저, 대회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슬로건을 보면, 초기 한국여성대회(1985-1988)의 슬로건에서는 ‘민족·민주·민중’과 같은 삼민 이념

18)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란 여러 개인들(또는 더 복잡한 수준의 집단들)에 의해 도출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되는 정의(interactive and shared definitions)”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① 행위의 목표, 수단, 현장에 대한 인지적 정의들 외에 ② 상호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자들 간에 활성화된 관계의 네트워크, ③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어느 정도의 정서적 몰입과 요소를 내포한다.

과 ‘민족 현실’ 또는 ‘자주화’와 같은 운동의 강령적 표현들이 등장하지 만, 1990년대의 슬로건에서 그것은 ‘평화, 군축, 통일’이라는 더욱 구체 적인 표현들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립기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은 진보적 여성운동의 구심체를 자임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 같은 당시 사회운동에서 널리 공유된 ‘일반 과제’와 관련된 정치투쟁과 성차별 철 폐를 비롯하여 여성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특수 과제’를 병 행해왔다.

그러나 ‘여성권익’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 차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첫 째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영유아보호법과 같은 쟁점을 시작으로 여성 이슈의 법제화에 대한 여성운동의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 치세력화가 여성운동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적 성과를 쟁취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제도적 투쟁 방식, 선거 참여 등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여성운동의 대중적 설득력과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 등은 과거와 구별되는 1990년대 여성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부터 여성연합은 매년 회원단체들이 발굴한 주요 현안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법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는데, 3·8 한국여성대회는 그해에 설정한 여성 운동의 방향을 선포할 뿐 아니라 중점과제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장으 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¹⁹⁾

〈표 3〉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1985-2016)

회차	연도	슬로건
1	1985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
2	1986	민주화와 여성 생존권
3	1987	민족현실과 여성운동
4	1988	여성이여! 민족자주화의 대열로!
5	1989	평등한 삶의 새 날을 향하여
6	1990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
7	1991	평화·군축·통일을 여성의 힘으로 지방자치제를 맞는 여성들의 각오
8	1992	여성들의 한 표로 세상을 바꾸자
9	1993	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
10	1994	지역살림의 참일꾼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여성의석 20% 확보!
11	1995	열린정치 생활정치,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12	1996	여성이 열어갈 21세기! 복지 인권의 시대로
13	1997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로!
14	1998	가자, 여성이여! 고용안정·인권이 보장되는 평등의 시대로!!
15	1999	평등, 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16	2000	새로운 천년,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17	2001	차별, 편견 깨트리고 남녀평등, 공동참여 사회로 나아가자!
18	2002	성매매방지법 제정·호주제 폐지·보육의 공공성 확보
19	2003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여성의 힘으로 반진평화를! 양성평등 예산 확대!
20	2004	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
21	2005	행복한 나눔! 평등한 가족! 힘내라 여성!
22	2006	양극화 넘어 더불어 함께! - 여성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한부모지원 제도 확대!
23	2007	양극화 넘어, 대안사회로! - 빈곤의 여성화 해소, 평등·평화문화 확산, 풀뿌리 지역공동

19) 여성연합의 중점사업은 ‘모성보호의해·탁아법 제정 요구’(1990년),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의 해(1991년), 성폭력추방의 해(1992-93년),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1994-1995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가정폭력방지법 제정’(1996년) 등으로 이어졌다.

		체 확산
24	2008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 사람, 돌봄, 상생
25	2009	여성이 만들어ю,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 관청은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부자감세 반대, 교육복지 확대, 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
26	2010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 성평등한 공동체, 여성의 한 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빈곤·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27	2011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28	2012	2012 약속해 -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29	2013	2013 여성,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으로 - 빈곤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
30	2014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 민주주의, 평등세상, 소통사회
31	2015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32	2016	희망을 연결하라 -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하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선거나 정치참여가 아닌 다른 중점사업이 슬로건이나 선언문의 제목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점사업의 과제는 선언문의 내용이나 ‘우리의 주장’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별도의 선포 순서, 주제강연과 발언, 상황극 등 대회 프로그램에 ‘내용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그쳤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슬로건이나 선언문에서 정치적 이념이 강한 표현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대신, 슬로건의 화두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희망 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성매매방지법’의 경우처럼 중점사업이 직접 슬로건에 제시되기도 하는데, ‘호주제 폐지’를 시사하는 ‘상생의 공동체’와 ‘평등 가족’에 이어, 최근에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폭력’의 극복,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같은 주장이 슬로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올해의 여성운동상

제3회 대회(1987)부터 시작된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1990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1, 2건을 선정하여 시상해왔으며, 인물 또는 단체에 대한 시상 내역은 <표 4>와 같다. 제1회 여성운동상의 수상자는 1986년에 부친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권인숙 씨로 정해졌다.²⁰⁾ 이렇게 한국여성대회의 초기에 도입된 여성운동상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맥스테크, 피코 노동조합), 경찰 성폭력사건의 폭로(강정순), 통일운동(임수경)에 앞장선 여성들의 용기와 실천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연대의 징표가 되었다.

민주화와 더불어 여성운동의 시대를 맞은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상 수상자의 범위는 한층 다양해졌다. 억압받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 기반을 마련한 의정활동(박영숙, 홍미영), 여성문화 창달에 기여한 여성주의 언론 및 문화운동(이계경, 이해경, 이해란), 빈민여성(강명순), 성매매 여성(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학부모들과 함께 해 온 풀뿌리운동(배옥병) 등 여성운동에 기여한 여성 활동가와 단체들이 상을 받았다. 최초의 성희롱 소송을 승리로 이끄는 데 일조한 3인의 공동변호인단(박원순, 이종걸, 최은순)을 비롯하여 부계혈통주의의 생물학적

20) 그러나 당시 수상자가 옥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상은 권 씨가 출소한 이듬해 9월에 별도로 이루어졌다. 권인숙 씨는 자신이 제1회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된 것은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대에 온갖 불평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전 여성들의 분노·용기·저항의 압축적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표 4〉 역대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1987~2016)

회차	연도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3	1987	부천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한 권인숙
4	1988	회사 측의 불법 위장폐업을 철회시킨 맥스테크 노동조합
5	1989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폭로한 피코 노동조합 / 경찰관에 의한 강간을 폭로한 강정순
6	1990	(수상자 없음)
7	1991	남북분단의 경계선을 넘은 통일의 불꽃, 임수경 / 바람직한 여성위원의 전형을 보여준 박영숙 국회의원
8	1992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9	1993	여행원제, 신인사제도를 폐지한 중소기업은행노동조합 여성정책실
10	1994	지역주민의 의사를 의회에 모범적으로 반영한 홍미영 인천시의회 의원
11	1995	(수상자 없음)
12	1996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변호사 도츠키 에츠로
13	1997	대안적인 여성언론을 창간하고 여성운동 대중화에 기여한 이계경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14	1998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변호인단 박원순, 이종걸, 최은순 변호사
15	1999	빈민여성 사회교육, 국내 최초 아동무료급식소를 운영한 강명순 부스리기선교회 협동총무
16	2000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재노조 식당) 144명
17	2001	정신대 할머니의 인권회복운동을 실천하는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공동대표
18	2002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과 사회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매매추진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19	2003	여성주의 문화활동의 지평을 넓힌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 / 여성들의 아픔을 희망으로 꽃피워내는 여성문화운동가 이해란 여성예술집단 '오름' 대표
20	2004	부계혈통주의인 호주제의 생물학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재천 생명과학부 교수
21	2005	여성의 생활현장과 이해에 기초한 여성노동조합을 건설한 전국여성노동조합
22	2006	풀뿌리 지역 운동의 모범을 보여준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23	2007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KTX 열차 승무지부
24	200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800번의 함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시위
25	2009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을 내걸고 510일간 파업투쟁에 승리한 전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 창립 이래 생협 활동으로 풀뿌리 여성운동에 기여한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6	2010	(수상자 없음)
27	2011	서울YMCA 종교계 성차별 관행을 개선한 너머서(전 서울YMCA성차별철폐회원연대)
28	2012	5년간 장기투쟁을 이어온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29	2013	국내 최초 친족성폭력 수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저자, 은수연

30	2014	대안적 운동의 주제로 우뚝 선 여성노인 밀양 할매들
31	2015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32	2016	〈수상자 없음〉 KTX 열차 승무지부가 여성운동 특별상을 수상

모순을 문제삼는 과학자의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학자(최재천)의 활동에도 여성운동상이 주어졌다.

한편, 1993년에 ‘중소기업은행노동조합 여성정책실’의 수상 이후 한동안 여성노동과 관련된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여성 2000년대의 수상 내역은 일하는 여성들의 집단 수상이 두드러진다. 노조 식당에서 일을 하다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자 144명’의 투쟁, 그리고 성차별적 고용 관행과 외주화에 맞서 싸운 ‘KTX 여승무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에 경종을 울리는 저항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1999년에 탄생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여성의 권리찾기를 비롯하여 남성 중심의 사업장과 노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2005년에 여성운동상을 수상하였다.

성별을 이유로 폭력에 짓눌리고 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부단히 이어져왔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여성인권은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쟁점들에 둘러싸여 있는 미해결의 현안이다. 이 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역대 수상자들(김학순, 도츠카 에츠로, 윤정옥)에 이어, 2008년 3·8대회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표 5〉 여성운동상 수상자의 활동 분야와 특성

(단위: 건, %)

	노조 노동자	여성단체 집단	피해 생존자	활동가	법조인	정치인	교수	언론인	전체
여성폭력·인권		1	5	1	1				8(26.7)
성희롱·성차별		1			1	1			3(10.0)
노동·고용	10								10(33.3)
가족·보육·복지		1		2			1		4(13.3)
문화언론				1				1	2(6.7)
기타		1		1		1			3(10.0)
전체	10	3	5	5	2	2	1	1	30(100.0)
	(33.3)	(10.0)	(16.7)	(16.7)	(6.7)	(6.7)	(3.3)	(3.3)	(100.0)

의회의 ‘수요시위’가 여성운동상을 받은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²¹⁾

〈표 5〉를 통해 여성운동상 수상자의 활동 분야와 특성을 살펴보면, 고용·노동 분야의 수상자가 압도적으로 많고(10건, 33%), 여성폭력·인권 분야(8건, 26.15%)가 그 다음으로 많으며, 나머지는 비슷한 편이다. 개인 수상과 단체·집단 수상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데(각 15건, 50.0%), 단체 수상 중 가장 많은 범주는 노조·노동자 집단이며, 개인 수상자로는 여성폭력·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운동을 펼친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이 가장 큰 비중(각 5건, 16.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수상자 중에는 법조인, 정치인, 교수, 언론인을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이밖에도 1997년 3·8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여성연합 10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회장 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10년간 여성단체의 실무자로 활동해온 7명의 상근활동가에게 ‘여성운동 지킴이상’을 수여하였다.

4) 여성권익의 디딤돌·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표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창안물의 하나는 아마도 여성권익(성평등) '걸림돌·디딤돌'일 것이다. 한국여성대회는 제12회(1996)를 맞이하여, 올해의 여성운동상 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여성권익의 디딤돌·걸림돌' 행사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디딤돌'로 이를 명명하고 있다.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하는 걸림돌·디딤돌은 한 해 동안의 주요 사건들을 모니터하고 그것을 반추하여 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3·8 행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디딤돌'이 여성권익과 성평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회적 실천을 여성의 이름으로 치하하는 것이라면, '걸림돌'의 시상은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가부장적 관행에 대한 통렬한 고발과 비판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여성권익(성평등) 걸림돌·디딤돌' 발표는 올해의 여성운동상과 더불어 한국여성대회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지역의 3·8 행사에서도 폭넓게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걸림돌·디딤돌의 선정 건수는 총 167건으로 걸림돌(78건, 46.2%)보다 디딤돌(91건, 53.8%)이 약간 더 많은 편이다. 걸림돌·디딤돌은 개인 단독, 2인 이상의 집단과 단체, 또는 프로그램이나 판례 등이 선정될 수도 있는데, 두 범주 모두 개인 단독 선정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

〈표 6〉 선정 대상의 특성 및 분야별 걸림돌·디딤돌

	걸림돌		디딤돌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NGO·대책위및활동가	0	0,0	17	18,7	17	10,1
교육·복지·종교계	5	6,4	2	2,2	7	4,1
국회 및 정치인	16	20,5	2	2,2	18	10,7
기업·경영자단체	14	17,9	0	0,0	14	8,3
노조·노동자	0	0,0	26	28,6	26	15,4
법원및법조인	17	21,8	14	15,4	31	18,3
시민/주민	1	1,3	10	11,0	11	6,5
언론·문화계	10	12,8	13	14,3	23	13,6
정부·지자체 공직자 및 군인	15	19,2	7	7,7	22	13,0
전체	78	100,0	91	100,0	169	100,0

다(걸림돌 45건, 57.7%, 디딤돌 87건, 40.7%).

직업군으로 보면 걸림돌의 경우 정치인, 공직자, 경영진이 많은 편이다. 디딤돌의 일차적 대상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과 차별의 피해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온 여성들과 고용차별이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한 여성들이며,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나 활동가, 기타 시민/주민들 역시 대부분 디딤돌에 속한다.

여성권의 걸림돌·디딤돌의 선정 이유를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걸림돌에서는 성희롱과 성차별,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문화를 왜곡하는 경우가 비중이 크다. 디딤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여성 인권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걸림돌·디딤돌을 구분하지 않고 시기를 나누어 선정 분야의 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여성 인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더욱 높아

〈표 7〉 선정 사유의 범주별 걸림돌·디딤돌

	걸림돌		디딤돌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여성폭력·인권	22	28,2	33	36,3	55	32,5
2. 성희롱·성차별	18	23,1	9	9,9	27	16,0
3. 고용·노동	19	24,4	21	23,1	40	23,7
4. 가족·보육·복지	2	2,6	9	9,9	11	6,5
5. 영화·언론 등의 성문화	10	12,8	11	12,1	21	12,4
6. 정의·평화·소수자인권	2	2,6	5	5,5	7	4,1
7. 기타 정책·정치 관련	5	6,4	3	3,3	8	4,7
전체	78	100,0	91	100,0	169	100,0

〈표 8〉 걸림돌·디딤돌 쟁점 분야의 시기별 추이

(단위: 건, %)

연도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6	전체
건수	46	43	29	51	169
1. 여성폭력·인권	30,4	27,9	20,7	45,1	32,5
2. 성희롱·성차별	13,0	23,3	13,8	13,7	16,0
3. 고용·노동	23,9	20,9	31,0	21,6	23,7
4. 가족·보육·복지	6,5	9,3	6,9	3,9	6,5
5. 영화·언론 등의 성문화	17,4	11,6	10,3	9,8	12,4
6. 정의·평화·소수자인권	4,3	4,7	10,3	0,0	4,1
7. 기타 정책·정치관련	4,3	2,3	6,9	5,9	4,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 여성혐오와 관련하여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사건이 이슈화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가족·보육·복지 등에 관한 선정은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5) 문화적 접근의 강화: 여성문화운동과 3·8 축제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이나 선언문이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실천 과제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대회의 참여자들이 운동에 대한 자긍심과 자매애의 연대감을 서로가 확인함으로써 활력을 얻게 만드는 것은 대회의 현장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문화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대회는 1980년대에 씨앗이 뿌려진 여성문화운동의 영향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현실을 풍자하는 마당극(사레극)이나 대동놀이의 앞풀이 형식인 ‘길놀이’를 기념식에 적용하는 것(1989년)으로 표현되었다.²²⁾ 그러나 초기의 한국여성대회는 여성운동의 존재를 드러내고 선언과 결의를 표명하는 집회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자 스스로 몰입하고 집합적 열광 속에서 연대감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지극히 한정된 편이었다.

기존의 집회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대회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은 한국여성대회 개최 10년을 맞는 1994년 무렵이었다. 여성연합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한 해 동안의 여성운동 과제

22) 일찍이 여성평우회는 1984, 1985년에 가부장제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성 주체의 놀이 문화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기 위한 여성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여성문화큰잔치’를 시도한 바 있다.

를 선포하는 일은 연초에 열리는 총회에서 이미 하고 있으므로 활동가 중심의 행사를 탈피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했다. 대중의 정서가 기존의 집회문화보다 대중문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다. 대중성을 지향하는 문화적 접근으로의 전환은 ‘여성문화예술기획’이 3·8 행사의 기획에 참여하고 여성연합 내부에 문화위원회가 설치되어 3·8 행사의 기획을 담당하게 되면서 점차 현실화되어간다.

문화적인 접근으로의 선회는 보다 많은 여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성의 물꼬를 터놓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연합 창립 10주년을 맞는 1997년의 한국여성대회는 “객석과 층계를 가득 메우고도 좌석이 모자라 로비에 마련된 퍼포먼스 등에만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고 전국 각지에서도 3·8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당시 행사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보면, 단순히 공연물을 유치하거나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문화행사를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의 한국여성대회는 이처럼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념식은 한층 공식성·형식성을 띠게 되었으며, 외부인사들의 방문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대회사 외에 ‘격려사’라든가 ‘내빈 소개’와 같은 순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더하여, 일반 대중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고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행사 장소의 위치와 행사 공간의 구조와 폐쇄성 때문에 대중성을 지닌 문화적 축제로서의 의미 생산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여성대회가 다시금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배

경에는 아마도 지난 과정에 대한 자성적 평가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02~2003년에 대학로 야외 공간에서 개최된 제18, 19회 한국여성대회는 기존의 퍼레이드 외에도 ‘시민난장’을 비롯한 식전 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퍼포먼스 등을 포함하여 한층 다채롭게 구성되었다.²³⁾ 이런 시도는 대중적인 여성축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축제를 통해 구성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모두 정치적인 것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는 마당극과 유사하게 놀이나 연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투쟁이 재현되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가 시연되고, 집단적 퍼레이드의 행렬이 점유하는 ‘시공간의 정치’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3·8의 상징적인 힘을 빌려 개인들이 저마다의 발걸음으로 축제의 시공간을 능동적으로 점유하고 열어가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관중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일반 대중의 발길과 시선이 넘치는 휴일의 대학로가 한국여성대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23) 2002-2003년의 3·8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리고 2,000~3,0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사 공간의 개방성과 위치를 고려한 축제 기획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 진보적인 여성 연대의 확장: 초국적 상징과 동원의 지역화

1) 지역여성운동과 한국여성대회: 3·8 운동의 확산 배경

‘한국여성대회’는 3·8 운동의 근간을 이루면서 선언에서 축제로 발전해 왔으나 3·8 운동의 진정한 성과와 결실이 확인되어야 할 곳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운동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가운데 일상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풀뿌리 운동의 고유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지역’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여성운동’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여성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지닌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사회운동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혜숙 1999; 2013).

3·8 세계여성의 날의 기념적 실천이 전국 각지로 확산될 수 있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1987년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창립 이후 각 지역에서 건설된 여성노동자회 조직의 활동이다. 여성연합 회원단체인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88년에 한국여성대회와 별개로 ‘여성노동자큰잔치’를 마련하였고, 1989년에는 3월 8일에 맞추어 대규모의 ‘여성노동자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3·8을 기념하는 여성노동자대회는 서울·인천 지역에서 시작되어 유사한 조직이 만들어진 마산·창원, 부산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및 그 지부들 외에 각 지역의 여성노동운동 관련 조직들이 참여하는 ‘여성노동자대회’

는 ‘한국여성대회’와 공존하면서 3·8 지역행사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2) 지역별 3·8 행사의 발전과 내용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그 회원단체들이 중심을 이루는 ‘한국여성대회’가 햇수를 더해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3·8 행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서울, 인천, 마산에서는 ‘여성노동자대회’나 ‘여성노동자큰잔치’가 열렸고, 제주에서는 제주여민회의 주도로 ‘제주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²⁴⁾ 또한 그 이듬해인 1989년 9월의 여성주간에 맞추어 개최된 한국여성대회는 비록 시기적으로 3·8 전후 시기를 벗어났으나, 지방의 여성연합 회원단체들까지 참여하여 저마다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전국을 포괄하는 대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²⁵⁾

우선 지역 3·8 행사의 연도별 추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3·8 행사가 일찍 시작되고 초기부터 지속성이 높았던 곳은 대체로 여성

24) “특히 올 3월에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인천, 마산 지역의 노조협의회 여성국과 지역여성노동자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집회를 꾸렸고...”(민주여성 1989/9/20, 24).

25) 서울지역에서는 9월 여성주간에 여성과현실전(민미협), 반핵평화 여성대회(공추련 등 3개 단체), 여성영화 상연전(여성의전화), 어머니큰잔치(기독교여민회)가 열렸으며, 그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는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어 ‘여성해방대동국’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민주여성 1990/5/20, 42-43). 또한 경남지역의 마산과 거창,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한 여성연합 회원단체들도 문화환마당이나 평화환마당을 개최하여 이에 동참하였다.

노동자회나 여성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 여성회/여민회 조직이 자리 잡은 지역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3·8 행사의 확산 범위는 한층 넓어졌다. 특히 여성연합의 지부조직(지역여성연합)들이 활동하는 2000년대에는 지역여성연합의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여성들을 포괄하는 대중적인 지역 3·8 행사들이 전보다 늘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1년의 한국여성대회의 포스터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지역여성대회의 행사 내용을 함께 소개한 것은 이러한 변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포스터는 전국의 주요 대도시를 망라하는 지역 3·8 행사들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이런 지역여성대회들이 한국여성대회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따로 또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여성대회의 3·8 행사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여성대회를 통하여 발굴되고 복원된 3·8 운동의 역사적 의미라든가 대회의 발전 과정에서 창안된 레퍼토리들이 비교적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대구, 울산,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지역여성대회의 주제를 나타내는 슬로건이나 행사 내용이 한국여성대회의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마다 대회의 강조점이 다른 까닭에 슬로건의 문안이나 행사의 구성에서 다양한 조합이 시도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⁶⁾

〈표 9〉 지역여성연합의 현황(2008년 기준)

여성연합지부	창립년도	회원단체 수	회원 수(명)
경기여성단체연합	1998	16	4,300
경남여성단체연합	2002	10	2,500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1999(1991)	7	3,700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1996	7	2,000
부산여성단체연합	1999	8	2,000
전북여성단체연합	1998(1993)	12(13)	4,315

주: 발족연도는 지역여성연합 연혁자료를 참고, ()안의 년도는 지역여성연합의 전신이 된 지역연대, 회원단체 수의 ()는 여성단체 이외의 여대생조직을 포함, 대전지역 7개 단체로 2012년에 창립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 2008년 지역여성단체 설문조사 및 각 지역여성연합 홈페이지.

여성연합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 3·8 행사의 대중적인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한국여성대회가 갖는 흡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지역행사들에 대해서 원심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6. 맺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8 세계여성의 날은 특정 지역에서 발원하여 국제화의 단계를 거쳐 오늘날에는 지구촌 전역에서 공유하는 기념일이 되었다. 이 기념일의 역사적 정립 과정은 서구 중심주의라든지 단일한 기원설을 파열시키는 여러 가지 분절된 경험과 서사들로 채워져

있다. 그것은 이날을 기념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해당 사회의 중층적 맥락을 반영하는 지역화된 동원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에 걸쳐 개최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는 지구화와 지역화의 경향이 어떻게 교차하면서 여성운동의 연대 형성에 기여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기념일의 기원 또는 유래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지극히 간결하고 단순하다. 하지만 오랜 역사, 국제연대, 초국적 페미니즘을 함축하는 이 지구적 상징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여성운동의 초기 동원 과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기념적 실천과 관련하여 진보적 여성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축적되는 “살아 숨쉬는 기억(living memory)” (Grever 1997)은 오히려 분단현실과 군사독재라는 당시 현실의 맥락과 맞물려 있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한 여성운동”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회의 개최를 통해 얻어진 조직적 연대의 성과는 역으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의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의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보다 정교한 기획과 의례화의 실천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테일러와 위티어(Taylor and Whittier 1995)가 구분한 문화의 네 가지 분석적 차원(프레임, 집합적 정체성, 담론, 의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여성대회 역시 여성운동의 의례인 만큼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역량강화와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 역량강화의 방식에 있어서 선언이나 강연을 통한 담론의 정치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집합적 열광과 축제의 기능을 더 부각시키느냐 하는 것은 의례화의 실천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군사독재 치하에서 개최된 1985년

의 제1회 한국여성대회는 단절된 기념적 실천의 복원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새로운 여성운동의 대의를 선언하고 결의를 다지는 집회로서의 의미가 컸다. 따라서 초기의 대회는 여성운동의 방향과 의제를 프레이밍하는 담론의 정치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두어졌으나 199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난장과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고민 속에서 운동의 의제를 창출하는 날이며, 그 시대의 고통을 짊어진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하는 모든 여성들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3·8 여성운동은 어느 면에서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에 담긴 이 무언의 정신적 유산에 가장 근접한 운동을 압축적으로 펼쳐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대회를 비롯하여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실천은 진보적 여성연대의 심화와 확장에 기여해왔으나 몇 가지 현실적인 난제들을 안게 되었다. 첫째는 행사의 시공간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념일의 상징성을 중시하는 행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늘어나고 있으나 3월 8일이라는 날짜를 전후로 많은 행사들을 배치하는 조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둘째는 한국여성대회와 지역여성대회를 비롯한 지역 3·8 행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전국대회의 규모와 틀을 지역에서 소화하는 것이 곤란하더라도,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방식을 모색하는 보다 유연한 접근과 실험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대회가 정치적 선언의 집회에서 문화가 숨 쉬는 축제로 강조

점이 이동한 것은 대중성의 확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민감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단지 문화행사의 항목들을 추가한다고 해서 축제의 의미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축제는 저항과 투쟁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문화정치적 장이며, 축제성은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 울고 웃으며 집합적 열정의 감응을 주고받는 체험의 현장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새로운 저항행위의 양식으로 부상한 ‘촛불 문화제’가 단순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중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까닭은 분명하고 절실한 행동의 이유와 축제성의 체험이 공존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제의 생산성이 뒷받침된다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의례들은 시대의 고통과 연대하는 여성운동의 정치성과 축제성이 공존하는 여성문화의 한마당으로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444~~

참고문헌

- 강남식. 2004.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기억과 전망』 제7권. 116-137.
- 강남식·윤정숙·남인순. 1999. “80-90년대 여성운동의 평가와 세기전환기 여성운동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세기 전환기 여성운동과 여성이론」.
- 김경희. 2011. “진보적 대중여성운동의 연속성과 변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5권. 184-216.

- 김명희. 2016.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34호. 55-101.
- 김엘리. 2013. “정체성의 정치에서 횡단의 정치로: 『젠더와 민족』.” 『아시아여성연구』 제52권 1호. 193-199.
- 김종엽. 1998. 『연대와 열광』. 창작과 비평사.
- 모한티, 찬드라 탈파드. 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문현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박선웅. 2007. “의례와 사회운동.” 『한국사회학』 제41권 1호. 26-56.
- 서명선. 1989. “유신체제하의 국가와 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6집. 79-97.
- 신상숙. 2010. “루트거스 광장을 넘어서: 3.8 세계여성의 날의 복합적 기원과 한국의 수용 맥락.” 『페미니즘연구』 제10권 1호. 159-198.
- _____. 2008. “연대, 선언, 축제의 시간으로: 3.8 한국여성대회의 역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한국여성대회의 의미와 전망 토론회 발표문(미간행).
- _____. 2007. “한국 반(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안숙영. 2012. “글로벌, 로컬 그리고 젠더.” 『여성학연구』 제22권 2호. 7-32.
- 여성평우회. 1985. 『여성평우』 제4호.
- _____. 1984. “발기취지문.” 『여성평우』 창간호.
- 유타데이비스, 나이라. 2012. 『젠더와 민족』. 박혜란 역. 그린비.
- 이상화. 2004.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차이의 존재론과 공간성의 사유.” 『한국여성철학』 4권. 79-94. 『한국여성철학』 제4권. 79-94.
- 이승희. 1991.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이현숙. 199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이혜숙. 2013. “지구화·지방화 시대 지역여성운동과 여성연대의 전망.” 『여성과학사』 18. 39-81.
- _____. 1999. “지역여성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여성학』 제15권 1호. 103-152.
- 임영일. 2006. “세계 노동절 유감(有感).” 『연대와 실천』 제143호. 1-8.
- 정근식. 1998. “축제와 민주주의: 5월 ‘행사’에서 ‘축제’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8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139-155.
- 최종렬. 2007.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포스트모던 집합의례.” 『문화와 사회』 3. 195-261.
-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 『열린 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8.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 기념 한국여성대회 역사자료집: 연대, 선언, 축제』.
- 한국여성단체연합. 각년도. 『정기총회보고서』.
- 황진태·정현주. 2015.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여성운동연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1호. 123-139.
- 川口和子, 小山伊基子, 伊藤セツ. 1980. 『國際婦人デ-の歴史』. 東京: 校倉書房.
- 伊藤セツ. 2003. 『國際女性デ-は大河のように』. 東京: 御茶の水書房.
- Buhle, Mari J. 1981. *Women and American Socialism, 1870-192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Chatterjee, Choi. 2002. *Celebrating Women: Gender, Festival Culture, and Bolshevik Ideology, 1910-1939*.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ôté, Renée. 1984. *La Journée internationale des femmes*. Montréal: Les Éditions du remue-ménage.
- Ferree, Myra M. and Beth B. Hess. 2002. *Controversy and Coalition: The New Feminist Movement across Three Decade of Change*. Routledge.
- Grever, Maria. 1997. "The Pantheon of Feminist Culture: Women's Movements and the Organization of Memory." *Gender & History* 9(2). 364-374.
-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ton, Hank and Bert Klandermans e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andel, Liliane et Françoise Picq. 1982. "Le mythe des origines, à propos de la journée internationale des femmes." *La Revue d'En face*. 12(automne). 67-80.
- Kaplan, Temma. 1985. "On the Socialist Origins of International Women's Day." *Feminist Studies*. Vol.11, No.1. pp.163-171.
- Melucci, Alberto 1995. "The Process of Collective Identity."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Hank Johnston and Bert Klandermans ed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ffen, Karen. 1988. "Defining Feminism: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Signs* 14(1), 119-157.
- Ozouf, Mona. 1988. *Festivals and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olze, Siegfried. 2001. *Der Internationale Frauentag einst und heute: geschichtlicher Abriss und weltweite Tradition vom Entstehen bis zur*

Gegenwart. Trafo.

Stevens, Joyce. 1985. *A History of International Women's Day: In Words and Images*. IWD Press.

Taylor, Verta & Nancy Whittier. 1995. "Analytical Approaches to Social Movement Culture: The Culture of the Women's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Hank Johnston and Bert Klandermans ed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웹사이트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omen21.or.kr/>

A Study on the Ritual of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Progressive Women's Solidarity in Korea

Shin, Sang-S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various events to celebrate it have contributed not only to expressing their needs and aspirations but also strengthening solidarity among women in each society.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mmemoration ceremony of International Women's Day, which is held around March 8 every year, is a local mobilization process of the women's movement with a global symbol of women's solidarity.

In Korea, the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Women's Day commenced in the 1920s,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owever the act of commemoration disappeared 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through the Korean division and the Korean War. It was the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that emerged in the 1980s, the period of military regime, that revived the tradition of commemoration. The progressive women's groups participating in the new women's movement in pursuit of social democracy held the first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on March 8, 1985. This is important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oalition building, which made it possible to launch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KWAU),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the progressive women's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llective practice of the women's movement in commemorat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such as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has been developed from a rally declaring the positions and demands of the women's movement to cultural festivals by changing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ritual.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from 1985 to 2016, and examine the proliferation process of the rituals held at the local level.

■ **Keyword:** International Women's Day,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Women's Movement, Women's Solidarity, Coalition Building, Ritual Analysis

투고 : 2016/9/30 심사 : 2016/10/17 확정 : 2016/11/10